

코오롱유화, 석유수지 8만톤 시대

2006년 2차 증설로 9만톤 계획 ... 중국에 페놀수지 1만8000톤 건설

코오롱유화가 여수 석유수지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6월15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유화는 2년 동안 400여억원을 들여 2만톤의 석유수지 공장을 증설했으며, 2006년 2차 증설분(한해 1만톤)까지 완공되면 세계 4위 수준인 9만톤의 석유수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1000억원의 추가 매출과 함께 석유수지 부문 매출액만 20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원료로 사용된다.

코오롱유화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석유수지 생산을 개시한 이래 현재 7만8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코오롱유화 관계자는 “과거 석유수지 원천기술을 외국기업에 의존했던 것을 완전 탈피해 독자적인 공정 및 제품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확장 및 세계화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유화는 2003년 중국 소주에 1000만달러를 투자해 현지법인 可隆化工蘇州有限公司을 설립했으며, 200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1만8000의 페놀수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법인은 중국 페놀수지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제품 시장을 적극 공략해 2008년 매출액을 28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15>